

# 日 스님들, 시애틀서 반핵 단식 법회 열어

센지 카네다 스님 등 ...

산오노프레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

일본불교계 스님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에서 반핵 단식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산클레멘테타임즈(SCTimes) 지는 6일 "시애틀 묘호지(Myohoji) 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 6명이 캘리포니아 연안 도시 산클레멘테(San Clemente)를 방문해 전막 법당을 세우고, '산오노프레(San Onofre) 핵발전소 재가동'에 항의하는 단식 법회를 6일째 봉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오노프레 핵발전소는 지난 1969년 해안가 근처에 세워진 것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가장 우려되는 핵발전소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쓰나미 피해는 물론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핵발전소의 운영 중단이나 즉각적인 폐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묘호지사 스님들을 반핵 현장으로 이끈 센지 카네다(Senji Kanaeda) 스님은 "우리의 서원은 간단명료"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연안에 세워진 핵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센지 카네다 스님은 "모든 생명은 그것의 가치나 평가를 떠나, 그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단식 법회는 핵에너지를 활용하기는 인



반핵 단식 법회를 하고 있는 일본 불교계 스님들(좌). 단식 법회에는 캘리포니아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와 개신교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 "다음 세대위해 의무 다해야" 개신교 주민들까지 운동 참여

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쓰러지는 아픔을 맛보게 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클레멘테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단식 법회에는 캘리포니아의 저명한 환경운동가 게리 헤드릭(Gary Headrick · San Clemente Green 대표)도 참여해, 지역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 개신교도이지만, 종교를 떠나 스님들의 뜻을 심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리 헤드릭 대표는 "핵발전소를 없애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에 안전한 녹색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이 깨어야 한다"며 "이번 단식 법회를 계기로 산클레멘테 녹색연합은 지역 주민의 힘을 모으는 한편

중요한 연대도 모색해, 이 지역에서 핵발전소를 없애는 데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센지 카네다 스님은 "모든 핵 시설은 정치계와 산업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불교계 스님들이 나서서 '일본 원전 사고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면,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스님의 일행은 산클레멘테 단식 법회에 이어 캘리포니아 카운티 중의 하나인 산루이스오비스포(San Luis Obispo)도 방문해 단식 법회를 봉행하고, 이 지역에 세워진 디아블로 케년(Diablo Canyon) 핵발전소의 위험도 경고할 예정이다.

한편 산클레멘테 시의회는 최근 산오노프레 핵발전소 운영사인 서던캘리포니아 에디스(SEC) 사로부터 핵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는 진단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재가동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서던캘리포니아에디스 측은 "산오노프레 핵발전소는 일본 지진과 같은 강력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반핵 여론은 만만치 않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노후 시설에서 방사성 증기 누출이 감지되는 등 위험 요소가 잔존해 있는 만큼 재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2년까지 운영되기로 한 핵발전소이지만, 운영 중단이나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산오노프레 핵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2200MW에 달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하루 전력 사용량의 20%인 1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오종욱 편집위원

## 선종사 정립한 대표 불교사학자

세계의 불교학자(43)

양증문 中 사회과학원 교수

양증문(楊曾文·73)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교수는 <육조단경(六朝檀經)>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연구 업적은 중국,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서양의 선종 연구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양증문 교수는 1939년 산둥성(山東省) 즉묵현(即墨縣)에서 태어나 북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후 북경대 역사학과에 입학해 중국고대사를 공부했다. 불교학의 대가로 알려진 양 교수지만 그가 처음부터 불교연구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국고대의 진한사(秦漢史)에 심취해 전공을 살려 중국정치사상사(中國政治思想史)를 연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권고로 저명한 불교학자인 탐용동 선생의 연구생이 돼 불교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 교수는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종교연구소(宗教研究所)로 분배(分配, 配) 국가에서 직장을 결정해 줬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중국사회과학원은 언어·종교·고고학 등 30여 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불교 연구실이 속한 세계종교연구소도 그 중의 하나로 1964년에 문을 연다.

세계종교연구소는 현재 80여 명의 연구원이 각각 불교·기독교·이슬람교·도교·종교원리 등의 연구실에서 활동 중이며, '세계종교연구', '세계종교문화' 등의 편집부를 가지고 있다. 양증문 교수는 현재 재가에서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것을 염으로 삼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열기가 주춤할 때 양증문 교수는 황심전(黃心川) 선생으로부터 무라카미 센쇼(村上專精) 선생의 <일본불교사상(日本佛敎史綱)>을 중국어로 번역할 것을 제의받고 작업에 착수했다.

양 교수는 2년의 시간을 들여 번역하는 동안 수많은 불경과 중국·일본의 연구업적을 열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얻은 수확은 불교연구의 평생 양식이 됐다"고 할 정도로 번역과정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골똥이며 긴 사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양 교수는 일본 불교에 관심을 가졌고 지속적으로 일본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중국과 일본 학계에 중국인 일본불교 전문가라는 평을 들으며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들과 교류하며 불교방면의 중·일교류에 대한 정리를 했다.

그러나 양증문 교수는 점차 관심을 일본불교에서 중국선종으로 돌리기 시작해 중국 선종사를 주된 연구범위로 삼았다.

양증문 교수는 철학과 역사, 그리고 일본 불교에 대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가



중국뿐 아니라 외국학자들에게도 호평을 얻었다.

그의 다각적 연구방법은 1998년 <나의 불교연구>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개인적으로 선진제자백가(先秦諸子百家)의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다. 이는 후일에 불교 연구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는 항상 불교사 연구에 중점을 뒀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1차 자료 및 불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수집해 자체로 고증했다.

<당오대선종사(唐五代禪宗史)>를 쓰면서, 전통적인 선종 자료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정사(正史)를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동한의 자료 비문 지방지(地方誌) 등을 적극 활용했다. 또 연구를 진행할 때는 각각의 주제를 당시의 특정한 역사 환경에 놓고 당시 역사의 상황 사건 및 당시 문화

육조단경·중국 선종 연구 대가 <불교사>통해 한국불교 소개 중·일 불교 연구, 일본 불교 체계화

계 사상계의 흐름 등과 연결 지어 객관적인 고찰을 통해 가능한 한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양증문 교수는 임계유(任繼愈) 선생의 책임 하에 편찬된 <불교사(佛敎史)>(중국 사회과학출판사 1993) 중 일본에 관련된 부분과 한국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양증문 선생이 집필할 정도로 중국·일본 불교뿐 아니라 한국불교 전문가로도 유명하다.

중국 사전에서 한국 불교에 관련된 서술 중 상당수가 양 선생의 작업에 의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불교를 중국에 알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로가 있다.

양 교수는 국내에도 익히 소개된 <교감 문화사(交感文化史)>(1993)를 비롯해 <중일문화교류사(中日文化交際史)>(1996), <당오대선종사(唐五代禪宗史)>(1999) 등 80여 편의 학술논문과 30여 편의 역사가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업적이 있으며, 현재 북경대 철학과 루우원 교수 등과 함께 중국 학계를 이끄는 대표적 불교사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 시카고, 불상설치로 범죄율 낮춰

작가 인디라 존슨, "내년까지 100개 설치할 것"

부처님 조각을 공원과 변화가 거리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추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화제다.

바로 '만(萬)개의 메아리(Ten Thousand Ripples, 이하 TTR)' 프로젝트다.

TTR 프로젝트는 미국 시카고 10개 지역과 지역 내 수십 개의 사회단체와 협력해 평화적인 세계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유리섬유와 합성수지로 불두(佛頭)를 제작해 지역 곳곳에 설치한 인디라 존슨(Indira Johnson) 작가가 있다.

"만개의 메아리는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이미지를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역과 삶속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50개의 불두가 지난 가을 알바니 공원, 로저스 공원 등 5개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아티스트이자 비폭력·평화교육자인 인디라 존슨 씨는 시카고 예술대(SAIC)에서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주지사 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휩쓴 유명작가다.

인디라 존슨에 따르면 TTR 프로젝트는 현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비폭력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예술을 촉매제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TTR은 2013년 50개의 조각을 어번 그리섬(Auburn Gresham), 에반스톤(Evanston) 등 5개 지역에 설치하며, 오는 7월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 박물관에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문맹 퇴치와 예술을 통해 삶과 문화를



시카고에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는 50개의 불상(佛像)이 설치됐으며 2013년 봄까지 50개가 더 설치된다(좌). 유리섬유와 합성수지로 불두(佛頭)를 제작해 지역 곳곳에 설치한 인디라 존슨(Indira Johnson) 작가.

연결하는 단체인 체인지 월드(Changing World)의 마크 로드리게즈 이사는 "TTR은 도시에서 급증하는 폭력과 살인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부처님 조각을 보고 일시적으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TR프로젝트는 인디라 존슨 작가와 체인지 월드 및 지역 커뮤니티들과 연계해 시카고 지역에 교육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에반스톤 아트센터, 로올라 메리대학,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등에서 미술 산책과 워크숍 및 파티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화를 이끌고 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턴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정보상태

원목 법상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NAVER 무인정보불전함**

**서원불교 특 043-647-2378, 011-467-1472**

### 극락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 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견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름처 관법, 오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오공희, 육단공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